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 시간은 120분임.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할 것.
-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나 불필요한 낙서가 있으면 0점 처리함.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예술이든 고급예술이든 예술이 문화와 경제의 맥락에서 고찰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아카데미와 정책과 비즈니스 사이에도 항상 연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엄청난 미디어의 확장과 함께, 미디어와 연관된 정보와 지식체계가 변환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정보의 속도와 양에 힘입어 지역적인 것이 다시 지구적인 것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 중요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지구화의 필요성은 문화와 경제에서 당연할 것이고, 특히 예술과 문화에서는 지역화된 특성과 가치들을 필요로 한다.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예술을 문화와 경제 일반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찰하는 새로운 경향은 지구적인 것이든 지역적인 것이든 다시금 대중문화를 재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문화가 차이를 중심으로 출발하면서 다시금 세계화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수많은 문화 섹터(sector)들에 힘입어 이러한 대중문화의 실행들은 실로 확산 일로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문화론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대중문화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를 토대로 대중문화를 고찰하기 위한 전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중문화와 집단기억이라는 것을 규명해보자.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언어도 이러한 미디어와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갖게 되는 기억을 말한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이나 언어는 개별적이고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는 특정한 지각적 자극에 의해 작용되는 심리적이고도 잠재의식의 성향을 띤다. 그러나 미디어와 소통의 발달로 우리의 기억과 잠재의식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과정을 거쳐 어떤 한 지역이나 개인으로 국한됨이 없이 집단적인 경험이 되고 기억이 되는 성향을 띠게 된다. 이렇게 대량생산된 기억이 공동의 기억으로서 역할을 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의 기억을 안드레아 휴센은 ‘상상된 기억’이라고 말한다. 휴센은 이러한 문화와 기억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중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형성되는 집단기억을 통해서 문화뿐 아니라 정치도 설명한다. 즉, 어떤 기억들이 지역적인 경계들을 초월하여 사용되는 것을 집단기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억은 전 지구를 가로지르며 확산되어 엄청난 비중을 가지게 되고 일종의 문화적 강박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집단기억은 문화 그 자체가 되는 하부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억에 대한 정치적인 이용만큼이나 광범하다고 한다. 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과 상징적으로 혹은 신화적으로 간접화되어 경험한 그것을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망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억압적으로 침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기억은 항상 미디어의 효과로서 과생되는 것이다.

미디어는 이렇게 기억을 확산시키지만 동시에 망각에도 기여한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CD롬과 인터넷 기사 등의 미디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이러한 기억들을 되살리고 이용하게 해준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성이 점차 역사에 입각한 의식적이고 연계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러할 때 과거와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감각해지거나 마비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망각되기 쉬운 것이 된다. 말하자면 어떤 한 지역을 초월하여 확산된 기억은 실제로 경험된 기억이라기보다는 망각으로서의 기억이라는 것을 문화의 특성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된 기억은 실제로 경험된 기억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기억과 잊기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대량소비 사회에서는 기억은 단지 다른 형태의 또 하나의 잊기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하게 전달되고 빠르게 소모되는 것으로서 기억과 잊기의 관계는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 미디어 정책들,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적 성향에 의해 조정되고 변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의 삶과 경험이 그러하므로 순수예술이나 대중문화는 모두 이러한 공통의 기억과 문화적 성향에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문화는 대중문화를 우리의 간접적인 기억으로 혹은 상상된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와의 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긴밀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대중문화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출처: 신방훈, 제목은 답안 작성과 관련이 있어서 생략).

(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표어 중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문학에서 ‘세계화’란 좋은 작품을 많이 써서 지구촌의 다른 언어권 독자들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쯤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작품이란 말이나’라는 물음이 새삼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물론 뻔하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읽힐 수 있는 작품,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구히 읽힐 수 있는 작품이라야 좋은 작품이 아니겠느냐는 답이 그것이다. 즉 고전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야말로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전적 가치를 지니는 좋은 작품은 곧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보편적 호소력을 지닌다는 말이 되겠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보편은 특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식의 단순 논리로 고전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의 성격을 해명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작품의 특수성이 강조될 때, 심지어는 그것이 과장될 때, 그 가치가 더 부각되고 보편적 호소력이 확대될 수도 있다. 가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피부의 색깔과 코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동서의 여러 나라 독자들에게 다 같이 뿌듯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보편적 호소력을 가진 고전급 작품이다. 그러나 이 호소력은 등장인물의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공감을 산다든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우리네 삶의 양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아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즉 그 특수성이 작품 속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흥미거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문학의 경우에도 이 보편적 호소력이란 말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세계적인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역량이야 타고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치열한 개인적 체험이나 성실한 자기 함양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길러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사라지고 말 표피 문화적 주제를 감각적 기법에 담은 안이한 작가적 태도로는 이런 역량이 절대로 양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소설계를 휩쓸고 있는 경박한 주제와 그에 못지않게 경망스러운 기법은, 그것이 누리고 있는 대중적 인기와는 아무 관계없이, 모두 고전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의 취향이나 대중적 인기를 완전히 외면하고 성공한 작가는 드물지만, 독자 대중의 눈치만 보는 작가치고 크게 성공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출처: 이상옥, 제목은 답안 작성과 관련이 있어서 생략).

[문제 1-1]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4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1-2] 제시문 (가)와 (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가)의 ‘집단기억’과 (나)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350(±50)자로 할 것(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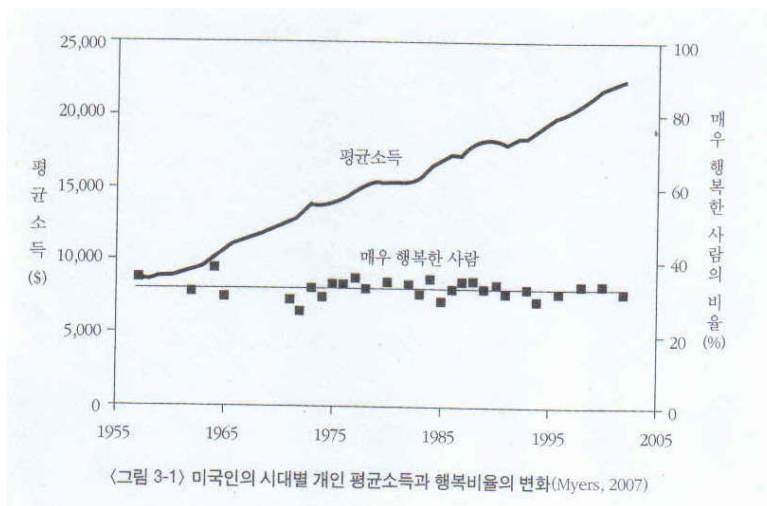
[문제 2] 다음은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800(±100)자로 할 것(50점).

1. 다음은 경제수준과 행복감에 관한 글이다.

(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돈이 행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물으면, 흔히 ‘돈과 경제적 여유’를 들곤 한다(Myers, 2000). 부의 증가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잦은 휴가를 갖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걱정을 줄여주고 가족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는 안락, 안전, 자유, 권력, 애정 등에 대한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나) 한국인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국민의 행복도는 어느 수준에 해당할까? Kahneman, Diener와 Schwartz(1999)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주관적 안녕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40개국 중 삶의 만족도가 25위였다. 조사된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8.39)였으며, 그 다음으로 덴마크(8.16), 아이슬란드(8.02), 스웨덴(7.97), 캐나다(7.88) 순이었고, 영국(7.48), 이탈리아(7.24), 중국(7.05), 프랑스(6.76) 등에 이어 한국(6.6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본(6.53), 터키(6.41), 인도(6.21) 등의 순서였고, 루마니아(5.88), 벨로루시(5.52), 러시아(5.37)가 뒤를 이었으며, 불가리아(5.03)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국인의 시대별 개인 평균소득과 행복비율의 변화(Myers, 2007)



(라-1) 행복도의 국가 간 순위는 질문내용이나 표본구성법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위권에 속하며, 동유럽 국가들이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수준이 행복도는 상당히 안정된 것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 Suh, 2000).

(라-2) 국가 간 비교에서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1인당 GDP는 국민의 주관적 안녕과 .50수준의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2) 아일랜드 국민은 미국인보다 약간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을 보고했지만,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Myers, 2000).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의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행복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1) 한 국가 내에서 살펴보면, 낮은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과 행복 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만,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단지 약간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한 연구에서는 10년간의 월급 증가가 행복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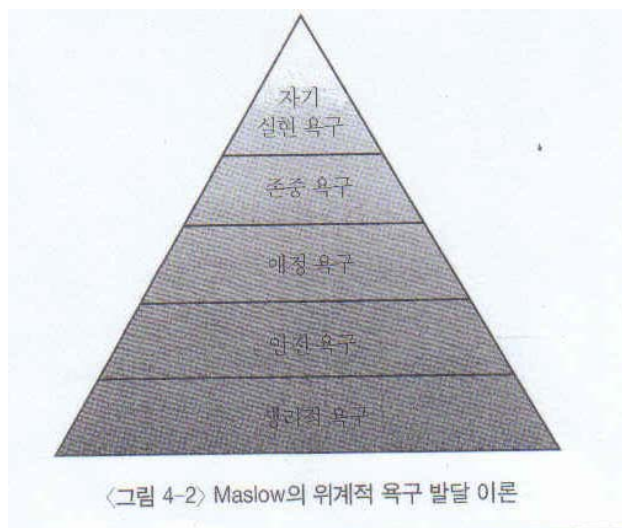
(마-2) 복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복권당첨 초기의 행복수준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대부분 비교적 빨리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복귀했다. 일부의 복권당첨자들은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한 삶의 혼란으로 인해 행복 수준이 오히려 떨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은 인간의 욕망 충족이론과 관련된 글이다.

(가)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욕구는 그 근원에 따라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로 구분될 수 있다. 생리적 욕구는 그 생리적 근거가 분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욕구로서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선천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개체와 종족의 보존에 기여하고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어왔으며 우리의 생물학적 유산을 이룬다. 심리적 욕구는 생리적 근거보다는 학습의 영향이 더 뚜렷한 후천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습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어떤 욕구를 습득한 정도가 다르고 또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나) 다양한 욕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Maslow(1954, 1970)는 인간의 욕구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한 욕구의 위계적 발달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위계로 구분하고 있다.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애정욕구, 존중욕구, 그리고 자기실현 욕구이다.



[문제2-1] 1번 제시문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문제 2-2]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발달 이론을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에 적용하여 해석하시오.

2012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예시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문제 1]

제시문 (가)는 신방훈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시각예술과 대중문화』에 실려 있는 “대중문화와 집단기억”의 일부 내용이고, 제시문 (나)는 이상옥의 “우리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일부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고, 제시문 (가)는 대중문화에 대한 글인바, 두 제시문 모두 정상적인 고교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다.

글의 제목에 나타났듯이 (가)는 대중문화와 집단기억에 관한 글이고, (나)는 대중문화를 거론하는 가운데 문학에서 특수성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아내고 있는 글이다. 이에 [문제 1]에서는 두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하여 그 주제의 층위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문제 1-1]에서는 제시문 (가)에 국한하여 요약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제에서 요약하기를 요구했는데 대중문화와 집단기억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요약문은 일관성을 갖춘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 1-2]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는 두 제시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에서 두 제시문이 모두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 있다는 기준점을 주었는데, 그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집단기억’과 ‘특수성’이 어떤 층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집단기억’과 ‘특수성’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비교·대조하면 충분하다.

[문제 2]

제시문은 경제수준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연구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은 American Psychologist에 실린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제목의 논문과 Kahneman 등(1999)이 저술한 책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Myers(2007)의 논문 “Psychology of happiness” 그리고 권석만 교수의 “긍정심리학” 등에서 발췌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 추론능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편집하였다.

첫 번째 제시문 (가)는 경제력과 행복이 비례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제시문 (나)는 한국인의 행복도를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다. 제시문 (다)는 195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인의 개인 평균소득 자료와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제시문 (라)는 다양한 국가 간에

행복도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끝으로 제시문 (마)는 한 국가 안에서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의 욕구 구분에 관한 이슈와 다양한 욕구들 간의 위계에 관한 문제를 소개한 것이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마)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출제 의도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기술, 그래프, 그림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2]는 경제력과 행복의 관계를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발달 이론’과 접목하여 논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제시문 (가)~(마)의 다양한 견해와 자료를 정리하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 설명한 이슈와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출제 의도가 있다.